

지역 매아리

고창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마쳐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 제267회 임시회가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비롯하여 차남준의원의 대표발의안 ▲고창군의회 의원의 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인규의원, 부위원장에 차남준의원을 선임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했다.

회의를 진행한 김영호 부의장은 "이번 회가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군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안전한 공사 추진에 '만전'

유진섭 정읍시장, 'c·리하다리' 가설공사 현장 방문... 안전 관리 상태 집중 점검

유진섭 시장은 지난 13일 정읍천의 뱃꽃로와 천변로를 연결하는 'c·리하다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유 시장은 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 진행 상황과 노무자들의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비산먼지와 분진 등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안전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c·리하다리'는 매년 봄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나들이객에게 즐거운 선물을 선사하고 있는 정읍천의 뱃꽃로와 천변로를 연결하는 다리다.

2020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며, 사업비 89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길이 73m, 폭 36m의 4차선 차도와 길이 27m, 폭 7.5m의 아치형 전망 공간을 갖추게 된다.

또한, 분수와 조경, 경관조명뿐 아니라 인도교에 무대를 설치할 수 있



유진섭 시장이 지난 13일 정읍천의 뱃꽃로와 천변로를 연결하는 'c·리하다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도록 설계해 다양한 문화공원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c·리하다리'가 완공되면 서부산 업도로의 연속성 확보는 물론 시가지 중심도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은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자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가을 수확철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총력

부안군은 농기계 사용이 많은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농기계 관련사고 중 32%가 수확철인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사고원인의 90% 이상이 운전자 부주의, 교통법규 미준수, 음주운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은 농기계 안전관리 노력에도 지속적인 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 읍면 주요지점에 현수막 게시하고 각종 회의시 농기계 안전관리 요령 홍보물 배포, SMS 문자발송, 마을 엠프방송 등을 활용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요령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농기계 부주의는 농업인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농기계 사용방법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 전후에는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수확철은 밤늦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농기계 야광반사판, 방화지시등을 부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하는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영농을 위해 힘쓰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위한 간담회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에서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높은 가운데 전복청 내 음주운전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근절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회식자리 후 안 가져가기, 1·1·2 節酒운동(1가지 술로 1차만, 2시간이내 술자리를 종료), 결의대회 등 수많은 대책을 시

행중임에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을 토론하고, 추후 조직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지·과출소장 및 계·팀장 등중간관리자들의 의무위반 예방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내부적으로는 조직원을 보호하고 외부적으로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더욱 높여나가기로 다짐했다.

송승현 청문감사담당관은 "좋은 제도나 교육을 통해 의무위반행위를 근절하려고 노력해도 조직원이 실천

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며 조직원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하는 중간관리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박정환 서장은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다면 경찰이 아까운 부족하다는 사회적 비난 집중 및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을 이어잡는 자명하다"며 "고창 경찰은 단 한번의 음주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모양성제, '모양성을 사수하라' 호평일색

'제46회 고창모양성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된 가운데 올해 첫 선을 보인 '모양성을 사수하라' 프로그램에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관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며 '답성놀이'와 '강강술래'에 이은 또 하나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고창군 '제46회 고창모양성제'를 마무리하며 '모양성을 사수하라'에 대해 "유비무환으로 정식으로 단 한번도 외적의 침입을 허락하지 않았던 모양성의 축성의미가 담긴

성공적인 프로그램 이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처음 진행된 '모양성을 사수하라(공성전)'는 결의에 찬 조선군의 훈련과 외적의 침략, 조선 정수의 왜나라 정수의 마상전투 등이 실감나게 펼쳐지며 남녀노소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봉화와 포 소리 등 특수효과도 돋보였다.

여기에 관객이 직접 참여해 성을 타고 오르는 왜군들을 향해 모형 돌과 화살을 날리며 굳건하게 성을 지켰다. 왜군이 후퇴하자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만세'의 환호성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특히 '3·1운동 100주년'과 '일본의 무역억제' 등의 현재 시대상황과 맞아떨어지며 몰입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실제 모양성은 1453년(조선 단종 1년) 축성 이후 단 한 번도 외적의 침략을 허용하지 않았다.

고창군 관계자는 "축제 기간 중 '모양성을 사수하라'에 보여준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축제의 명성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어린이 흡연 예방 아동극 공연 펼쳐

정읍시 보건소가 아동에게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고 아동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섰다.

이의 일환으로 보건소는 초등학교에 입학 전인 아동을 대상으로 '공연 YES or YES' 어린이 흡연 예방 아동극 공연을 펼치고 있다.

보건소는 지난 14일 크레용 유치원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10개소 8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이 아동극을 보면서 흡연 상황을 생각해보고 간접흡연에 대해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더불어, 아동의 가족에게 내용을 전달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성장이 흡연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건강 피해를 남기고 중독성이 강해 금연이 어렵다"며 "앞으로도 아동극 공연 등을 통해 흡연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는 '담배 연기 없는 사업장 만들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건강증진과 금연상담실

(☎539-608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이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널리 고취하고자 제23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한마당 잔치를 15일 부안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했다.

경로효친사상 널리 널리

부안군, 노인의 날 기념 한마당 잔치 큰 호응

부안군은 우리사회 성장·발전에 크게 기여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널리 고취하고자 제23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한마당 잔치를 15일 부안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지회장 김종열) 주관으로 관악원 부안군수와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관내 어르신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겨운 잔치마당으로 치러졌다.

부안 출신 전문 M이자 가수인 김종석씨 사회로 시작된 식전공연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의 체조교실 수강생들로 이뤄진 생활체조 공연과 메리텔스 난타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노인경쟁 남독과 감사패, 모범노인 표창패, 효행자 표창장 등을 수여했으며 올해 100세가 되

신 장수어르신 두 분에게 대령의 청려장(장수지팡이) 전달과 장수패를 증정했다.

특히 올해 기념행사는 실외로 장소 옮겨 어르신들이 다함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등의 시간을 가져 어느 해보다 일찬 행사로 꾸며졌다.

김종열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장은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발전해도 노인들의 지혜로움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할 것"이라며 "부안의 어른으로서 자랑스럽고 멋있게 살자"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연륜을 배워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smaller image of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everal smaller images of different wine bottles and gift set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specifications.